

초등학교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 대한 가정관련 변인의 영향력 분석

정 윤 미 · 장 영 애*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 소비자아동학과*

The Effect of Home Related Variables on Children's School Adjustment

Jeung, Yun Mi · Jang, Young A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Univ. of Incheon, Incheon, Korea

Dept. of Consumer Science and Child Development, Univ. of Incheon, Incheon, Kore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effect of home related variables like socio-demographic variables, parent-child communication, and concern for children's education on children's school adjustment. The data was collected from 287 elementary school children living in Gyunggido. Measurement scales included the children's school adjustment inventory, the questionnaire of the socio-demographic variables, the parent-child communication index, and the parent's concern about children's education index. Results showed that children's school adjustment was significantly effected with regard to: father's age, father's education, mother's education, income, and mother's job. Correlation analysis indicated that parent-child open communication was positively correlated to children's school adjustment; that is the relationships with teachers and with friends, study at school, and rule of school. As well, parent-child problematic communication was negatively correlated to all of the school adjustment variables. Parent's concern about children's education indicated positive correlations with all of the school adjustment variables. It was also found that: parent's concern about children's education, parent-child open communication, parent-child problematic communication, mother's education, and income were significant predictors of the children's school adjustment.

Key words: school adjustment, parent-child communication, parent's concern about children's education, socio-demographic variables

I. 서론

오늘날 학교교육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환경에 잘 적응하여 자기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보다 행복하고 원만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으
로 성장시키는데 그 목표가 있으며 이것은 학교
생활 적응이라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학교생
활 적응이란 아동이 학교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접수일: 2009년 1월 30일 채택일: 2009년 2월 28일

Corresponding Author: Jang, Young Ae Tel: 82-32-770-8254 Fax: 82-32-770-8250

e-mail: chae@incheon.ac.kr

잘 조화되고 성공적인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교사, 다른 학생 등 의미 있는 타인들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해가며 학교수업에 적극적이고 학교규범에 순응하며 독립된 한 개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해 가는 것을 말한다(주현정 1998). 따라서 이러한 학교생활 적응에는 교사와의 관계, 교우와의 관계, 학교수업참여, 학교규칙준수 등의 영역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유윤희 1994).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아동은 학교에 대한 감정이나 태도, 동기가 긍정적이기 때문에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학교성적이 향상되며 행동특성이 바람직하게 형성되어 개인의 성장은 물론 학교와 사회발전에 큰 도움을 준다(안영복 1984). 반면 아동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 불안, 무능력, 자포자기, 소극적이 되고, 공격적, 파괴적 행동을 보이거나 비행행위까지 보이게 된다. 이는 결국 자아개념 및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학교는 물론 아동 자신에게도 부정적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Ladd et al. 1996). 또한 아동이 학교생활에 얼마나 잘 적응하느냐의 문제는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는 것을 결정하고 이후 성인기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아동에게 학교생활 적응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아동의 환경중 가정은 인간교육의 최초의 장으로써 대부분의 아동은 사회집단 속에 들어가기 전까지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자신의 성격이나 행동양식, 습관 등을 일정한 유형으로 형성해 나간다. 이처럼 가정은 인간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공동사회의 기초단위로 인생의 출발점이며, 처음으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곳이며, 성장 발달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는 곳이다. 특히 자녀는 가정 내에서 부모의 모습을 모델링 해가며 성장한다. 이는 자녀들의 성격이나 인격형성 등에 인적환경인 부모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 지를 시사해 준다. 즉, 부모는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요인으로, 가정의 분위기나 부모의 행동양식, 관심 등은 아동의 생활습관이나 대인관계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초등학교 시기의 아동은 가정에서 학교라는 교육환경으로 옮겨지면서 기본 생활습관과 기초 학력을

갖추고, 지적, 정서적, 사회적, 신체적, 도덕적 발달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건전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를 형성해 나가는데, 이의 밑받침이 되는 것은 가정에서의 부모와의 상호작용, 부모-자녀 간 관계형성, 부모가 제공하는 다양한 경험이나 환경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초등학교 학령기의 어린이들에게 있어 학교생활 적응은 가정에 관련되는 변인들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서미선 2004; 김승봉 2005),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학교현장에 있는 교사들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부모가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가에 대한 기초적인 탐색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가정관련 변인 중 가정 내의 부모-자녀간의 관계는 가장 기본적으로 영구적인 관계이며 인간의 성장발달과 행동양식의 중요한 결정요인 중의 하나인데, 특히 부모-자녀간의 관계를 강화시키기도 하고, 약화시키기도 하는 매개체가 의사소통이다.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은 자녀들의 바람직한 태도와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이 되며, 인간관계의 기초를 형성하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개인의 사회적응에 영향을 준다. 또한 부모와의 의사소통은 가정이라는 좁은 활동공간을 넘어 학교라는 새로운 공간까지 삶의 공간이 확장되기 시작하는 초등학교 아동들의 학교생활적응에도 영향을 준다. 부모-자녀간의 다양한 대화를 통하여 아동들은 학교에서의 학습, 규범준수, 학교행사 등에 있어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는 기본 소양을 배우며, 대화를 통한 부모-자녀간의 관계는 교사와의 관계 뿐 아니라 교우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은 아동의 전체적인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은 순환모형에 기초하여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이 기능적인 수준이 되도록 도와주는 개방형 의사소통과 이를 방해하는 문제형 의사소통으로 구분 될 수 있다(Barnes & Olson 1982). 개방형 의사소통은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에 있어 억압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실 또는 감정을 표현하는 긍정적인 의사소통 유형이고, 문제형 의사소통은 상호간의 의사교환을 하는

데 주저하고 주제 선택에 조심을 하여 의사소통이 원활이 이루어 지지 않는 역기능 적인 의사소통 유형이다.

최근의 몇몇 연구들은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학교생활 적응과 관계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남민숙(2006)은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이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결과 부모와 개방적 의사소통을 많이 할수록 자녀의 학교 적응이 전반적으로 높아졌으며 특히 아버지와의 개방적 의사소통은 아동의 학교 규칙 준수에 도움이 되었다고 했다. 이연숙(1991)은 부모와의 의사소통 중 개방적, 기능적 의사소통을 하는 가족의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는 가족의 청소년 보다 더 좋은 적응 상태를 보여준다고 했다. 김현숙(1999)과 최재숙(2003)의 연구에서도 자녀와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이 개방적인 집단은 문제형 집단에 비하여 교사관계, 교우관계, 학교수업 등 학교적응의 대부분의 영역에서 잘 적응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세용(1995)은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자녀의 문제행동 관계에서 동성인 부모와 자녀의 경우 더욱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연구결과를 보고 하였다. 즉, 여자 어린이가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차유림(2000)의 연구결과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긍정적일수록 의사소통이 정확하고 모순되지 않는 메시지를 보내고, 감정이입과 지지적 발언 및 효과적인 문제해결 기술을 가진 유형일수록 아동의 학교적응 수준이 증가하였다. 이은자(2005)는 어머니의 관심과 대화가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는데 중요한 요인이라고 했다. 또한 이영주(2007), 조윤미와 이숙(2008) 등도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침을 보고하고 있다.

한편 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 역시 자녀의 학교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적 관심과 학습조력자로서 역할을 수행해 갈 때 이는 자녀의 올바른 성장은 물론 학교생활 적응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 Gotts(1980)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에게 관심을 가지고 학습을 보조하거나 일차적인 가정교사의 역할을 수행할 경우 자녀의 학교생활

에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하였으며, 서미선(2004)은 부모가 교육에 관심이 높을수록 자녀가 학교생활에 잘 적응한다고 하였다.

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은 협의로는 부모가 자녀에게 숙제를 하도록 장소를 제공하며, 자녀가 숙제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부모가 확인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Epstein 1987). 그러나 넓은 의미로는 자녀의 학업수행에 의한 기대, 학업에 대한 격려 또는 상호작용, 학업수행에 대한 직접적인 강화, 일반적인 학습지도와 지지, 자녀의 일상활동과 공부를 감독하는 정도, 학교와의 계속적인 상호작용 등 포괄적인 것들이 포함된다(Fehrmann et al. 1987). 선행연구를 통해서 볼 때 이러한 부모의 자녀교육 관심은 자녀의 학업성취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Ho & Willms 1996; 주동범 1998; 조수영 1980; 장운선 1992; Useem 1992; 홍은진 1995). 또한 서미선(2004)은 부모가 자녀교육에 관심이 높을수록 자녀가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므로, 자녀와의 대화와 교육에 대한 관심 및 교육적이고 바람직한 환경조성을 통해 자녀의 학교생활적응력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선행연구를 통해서 볼 때 가정에 관련되는 변인 중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이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 관계됨을 알 수 있다. 즉, 부모의 연령, 부모의 학력, 월수입, 어머니의 취업유무 등이 학령기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 등이 보고 되고 있다. 먼저 부모의 연령과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를 본 연구를 살펴보면 유복귀희(2003)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연령이 적을수록 아동이 교사와의 관계, 학습활동, 학교행사 참여에 더 높은 적응력을 나타낸다고 하였으며, 김승봉(2005)은 부모의 연령과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부모의 학력과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들은 대체로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아동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관희 1997; 김용희 1989). 박지현(2003)도 어머니와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가 학교에 잘 적응한다고 했으며, 노미숙(2003)의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학교생활과 교우관계에 더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월수입과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보면 대부분, 가정의 경제적 지위가 높고 수입이 많을수록 학교생활 적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봉(2005)은 가정의 경제력이 높을수록 아동의 교우관계, 학교행사 참여와 같은 학교생활 적응이 높음을 보고했고, 서미선(2004)도 저소득층 보다 고소득층일수록 교우관계, 학업성취도와 같은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력이 높음을 보고했다. 어머니의 취업유무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보면 문정현(2002)과 이강홍(1999)의 연구에서는 교우와의 관계에서 비취업모의 아동이 취업모의 아동보다 학교적응이 높게 나타났다. 송영경(2006)의 연구에서도 비취업모의 아동이 취업모의 아동보다 학교생활 적응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은영(2006)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라 학교생활 적응이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통해서 볼 때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는 않지만 가정의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은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관계되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정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 부모의 자녀 교육 관심도는 모두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정에 관련되는 변인중 가정의 일반적 특성을 나타내는 사회인구학적 변인, 부모-자녀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그리고 아동의 학교생활에 가장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도를 가정 관련 변인으로 보고 이들 변인과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선행연구들을 통해서 볼 때 선행연구들은 주로 이들 각각의 변인과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를 다루었지, 가정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부모의 자녀교육 관심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특히 이들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한 연구는 발견할 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주는 가정관련 변인들을 종합적으로 탐색해 봄으로써, 아동들이

학교생활에 보다 잘 적응해 나가는데 필요한 환경 조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학교생활 적응에 대한 선행연구는 주로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 초등학교 시기는 아동이 학교생활을 통해 사회 환경 속에서 적응 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시기이며(Elliot 1972), 아동이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차 증가되고 가정의 사회화 기능이 상당 부분 학교로 이양되며(강문희 1980), 또한 가정이나 부모의 영향력이 큰 시기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학교생활 적응에 대한 가정관련 변인의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둘째,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부모의 자녀교육 관심도와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셋째,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 대한 가정관련 변인의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초등학교 4·5·6학년 아동 287명과 그들의 어머니 287명이다. 이들은 경기도 소재 4개 초등학교에서 표집 되었는데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의 도구는 학교생활적응 척도, 가정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지,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척도, 부모의 자녀교육 관심도 척도가 포함된다.

1) 학교생활적응 척도

학교생활적응 척도는 유윤희(1994)에 의해 사용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본래 중, 고등학생용의 척도이나,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이 사용해도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일부의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Variables	N	%
Grade	4th	109	38.0
	5th	89	31.0
	6th	89	31.0
Gender	male	130	45.3
	female	157	54.7
Father age	under 40	58	20.2
	40~44	160	55.7
	45 over	59	20.6
Mother age	under 40	167	58.2
	40~44	102	35.5
	45 over	15	5.2
Father education	under high school	61	21.3
	college	64	22.3
	university over	162	56.4
Mother education	under high school	99	34.5
	college	73	25.4
	university over	115	40.1
Income	under 2 million won	30	10.5
	2million ~	53	18.5
	under 3 million won		
	3 million ~	70	24.4
	under 4 million won		
	4 million ~	56	19.5
under 5 million won			
5 million won over	78	27.2	
Mother job	yes	146	50.9
	no	141	49.1

문항을 초등학교 학생에게 접합하도록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아동이 학교, 학급에서 얼마나 잘 적응하는가를 묻는 척도로 교사와의 관계, 교우와의 관계, 학교 수업 참여, 학교 규칙 준수의 네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며 총 32문항이다. 각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어 매우 그렇다(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의 점수가 주어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생활 적응을 잘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교사와의 관계는 $\alpha = .67$, 교우와의 관계는 $\alpha = .74$, 학교수업참여는 $\alpha = .73$,

학교규칙준수는 $\alpha = .63$ 이며 전체 학교 생활적응 척도의 신뢰도는 $\alpha = .86$ 으로 나타났다.

2) 가정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지

가정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지에는 부모의 연령, 부모의 학력, 월수입, 어머니 취업 유무를 알아보기 위한 문항이 포함되었다.

3)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척도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척도는 민하영(1991)의 척도를 초등학교생에게 적합하도록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Barnes와 Olson(1982)이 제작한 의사소통척도를 기초로 한 것이며, 개방형 의사소통과 문제형 의사소통 2개의 하위척도를 포함하고 있다. 본 척도는 총 20문항으로 각 척도는 '매우 그렇다'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의 5점 Likert식 척도로 구성되며, 신뢰도는 개방형 의사소통이 $\alpha = .75$, 문제형 의사소통이 $\alpha = .66$ 으로 나타났다.

4) 부모의 자녀교육 관심도 척도

부모의 자녀교육관심도 척도는 이상수(1990)의 척도를 기초로 서미선(2004)이 사용한 척도를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학교에서 일어난 일이나 숙제, 학습지도 등에 대한 부모의 관심을 측정하는 19문항으로 구성되며, '매우 그렇다'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의 Likert식 5점 척도로 이루어진다. 본 척도의 신뢰도는 $\alpha = .83$ 으로 나타났다.

3. 절차

본 조사를 실시하기 전 도구의 적절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초등학교생과 그의 어머니 2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부의 문항을 수정, 보완한 후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경기도에 소재한 4개의 초등학교에서 4·5·6학년 학생 400명과 그들의 부모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부모용 질문지는 교사의 협조를 받아 아동을 통하여 학부모에게 보내 응답토록 하여 회수하였으며, 아동용 질문지는 학급

에서 아동들이 응답하게 한 후 회수하였다. 회수된 질문지 중 부모와 아동 어느 한쪽이 없는 질문지, 응답이 누락되었거나 불성실한 질문지를 제외한 총 287 쌍의 질문지가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되었다.

수집된 자료들은 SPSS 12.0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되었다. 즉,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및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 편차를 산출하였으며, 각 척도의 신뢰도를 파악하기 위해 Cronbach의 α 를 산출하였다. 그리고 각 연구문제 별로 t검증, F검증, Scheffé 검증, 상관분석,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본 연구의 결과를 가정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학교생활 적응의 차이,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및 부모의 자녀교육 관심도와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 학교생활 적응에 대한 가정관련 변인의 영향력 분석으로 나누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가정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학교생활 적응 차이

가정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학교생활 적응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는 다음 Table 2와 같다.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회인구학적 변

Table 2. Differences in school adjustment according to the socio-demographic variables

Variables	Relationship with teachers			Relationship with friends			Study at school			Rule of school			Total		
	M	t/F	S	M	t/F	S	M	t/F	S	M	t/F	S	M	t/F	S
Father age	under 40	3.13		3.40			3.16			3.49		b	3.30		
	40~44	3.21	.53	3.37	.99		3.21	.25		3.43	3.24*	ab	3.30	.20	
	45 over	3.16		3.48			3.18			3.24		a	3.27		
Mother age	under 40	3.20		3.37			3.22			3.47			3.31		
	40~44	3.18	.07	3.44	1.00		3.16	.81		3.35	1.84		3.28	.54	
	45 over	3.21		3.28			3.10			3.27			3.21		
Father education	under high school	3.06		3.12		a	3.00		a	3.19		a	3.09		a
	college	3.20	2.37	3.50	10.72**	b	3.18	7.96**	b	3.35	8.53**	ab	3.31	11.68**	b
	university over	3.23		3.45		b	3.26		b	3.53		b	3.37		b
Mother education	under high school	3.09		3.27		a	3.10		a	3.23		a	3.17		a
	college	3.06	10.92**	3.35	6.11**	ab	3.16	4.86**	ab	3.32	16.09**	a	3.22	16.71**	a
	university over	3.35		3.52		b	3.28		b	3.64		b	3.45		b
Income	under 2million won	2.95		3.00		a	2.88		a	3.26			3.02		a
	2million ~ under 3 million won	3.09		3.31		ab	3.21		b	3.37			3.25		ab
	3 million ~ under 4 million won	3.22	3.08*	3.47	5.69**	b	3.25	4.49**	b	3.49	1.60		3.36	5.60**	b
	4 million ~ under 5 million won	3.21		3.43		b	3.16		b	3.33			3.29		b
	5 million won over	3.29		3.49		b	3.26		b	3.50			3.38		b
Mother job	yes	3.12		3.28			3.10			3.32			3.20		
	no	3.26	-2.38*	3.50	-3.66**		3.28	-3.36**		3.52	-2.98**		3.39	-4.15**	

*p<.05 **p<.01
S: Scheffé검증 결과임

Table 3. Correlation coefficients of the parent-child communication, concern about children's education and children's school adjustment

	Relationship with teachers	Relationship with friends	Study at school	Rule of school	Total
Parent-child communication					
open	.232**	.275**	.242**	.249**	.332**
problematic	-.154**	-.311**	-.247**	-.212**	-.307**
Concern about children's education	.288**	.318**	-.274**	.314**	.398**

**p < .01

인 중 먼저 아버지 연령에 따라서는 학교규칙 준수에서 유의한 차가 나타나 아버지의 연령이 40세 미만인 아동이 45세 이상인 아동보다 학교규칙 준수에서 더 높은 적응을 나타냈다. 어머니 연령에 따라서는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 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아버지의 학력에 따라서는 교우와의 관계, 학교수업참여, 학교규칙 준수에서 차가 나타나 교우와의 관계와 학교수업참여에서는 아버지가 고졸인 집단 보다 전문대졸, 대졸 이상인 두 집단의 아동이 더 높은 적응을 나타냈고, 학교규칙 준수에서는 아버지 학력이 고졸이하인 집단보다 대졸 이상인 집단의 아동이 더 높은 적응을 나타냈다. 학교생활 적응 총점도 아버지 학력이 높은 집단이 더 높은 적응을 나타냈다. 어머니 학력에 따라서는 학교생활 적응 하위 변인 모두와 학교생활 적응 총점에서 유의한 차가 나타났다. 즉, 교사와의 관계, 학교규칙 준수에서는 어머니의 학력이 고졸이하, 전문대졸 두 집단보다 대졸이상인 집단의 아동이 더 높은 적응을 나타냈고, 교우와의 관계와 학교수업 참여에서는 고졸이하 집단보다 대졸이상 집단의 아동이 더 높은 적응을 나타냈다. 학교생활 적응 총점은 고졸이하, 전문대졸인 집단보다 대졸이상인 어머니의 아동이 더 높은 적응 총점을 나타내 어머니의 학력이 높은 경우 아동이 더 높은 학교생활 적응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월수입에 따라서는 교사와의 관계, 교우와의 관계, 학교수업참여와 학교생활 적응 총점에서 유의한 차가 나타났다. 즉, 교사와의 관계는 월수입

이 200만원 미만인 집단보다 500만원 이상인 집단이 더 높은 적응을 나타냈고, 교우와의 관계는 200만원 미만인 집단보다 300만원 이상인 세 집단이 더 높은 적응을 나타냈다. 학교수업 참여는 200만원 미만인 집단보다 200만원 이상인 네 집단이 더 높은 적응을 나타냈고, 학교생활 적응 총점은 200만원 미만인 집단보다 300만원 이상인 세 집단이 높은 적응을 나타내 월수입이 많을수록 학교생활 적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어머니 취업유무에 따라서는 모두 어머니가 취업을 안한 경우 더 높은 학교생활 적응을 나타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서 볼 때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어머니의 연령을 제외한 아버지 연령, 아버지 학력, 어머니 학력, 월수입, 어머니 취업유무에 따라 학교생활 적응 하위요인 별로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부모의 자녀교육 관심도와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자녀교육관심도와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이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이들 변인들 간의 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다음 Table 3과 같다.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먼저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학교생활 적응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개방형 의사소통은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과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고 있었다. 개방형 의사소통은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 총점과 .322의 정적상관을 나타내고 있었고, 학교생활 적응 하위 변인들과도 .232 ~.275의 정적상관을 나타내 부모

-자녀간 개방형 의사소통을 많이 할수록 아동이 학교생활 적응을 잘함을 알 수 있다. 한편 문제형 의사소통과 학교생활 적응은 모두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 부모-자녀간 문제형 의사소통을 많이 할수록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이 낮아짐을 알 수 있다. 부모의 자녀교육 관심도와 학교생활 적응 총점은 .398의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고 있었고, 하위 변인별로도 .274 ~ .318의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 부모가 자녀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질수록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3.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 대한 가정관련 변인의 영향력 분석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 대한 가정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부모의 자녀교육 관심도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이들 변인간의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Table 4와 같다.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먼저 교사와의 관계에는 자녀교육관심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그 다음은 어머니 학력, 개방형 의사소통 순으로

나타나, 어머니가 자녀의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학업 등에 관심을 가질수록, 그리고 어머니의 학력이 높고, 자녀와 자유롭게 감정을 표현하는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많이 할수록 자녀가 교사와의 관계에 적응을 잘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이들 변인은 교사와의 관계 적응에 15%정도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교우와의 관계에는 자녀교육관심도와 문제형 의사소통이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고 20%의 설명력을 나타내, 어머니가 자녀의 학교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자녀와의 의사교환을 주저하는 역기능적인 문제형 의사소통을 적게 사용할수록 자녀가 교우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함을 알 수 있다.

학교수업 참여에는 자녀교육 관심도만 유일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고 16%의 설명력을 나타내, 어머니가 자녀의 학교교육에 관심을 가질수록 자녀가 학교수업에 잘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교규칙준수에는 어머니학력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고 그 다음은 자녀교육관심도, 월수입 순으로 나타났으며 21%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학교생활 적응 총점에는 자녀교육관심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그 다음은

Table 4. Effects of the home related variables on children's school adjustment

	Relationship with teachers			Relationship with friends			Study at school			Rule of school			Total		
	B	β	t	B	β	t	B	β	t	B	β	t	B	β	t
Father age	.086	.123	1.08	.093	.138	1.23	.087	.124	1.08	-.097	-.143	-1.18	.029	.049	.36
Mother age	-.056	-.080	-.69	-.018	-.027	-.19	-.123	-.177	-1.25	-.063	-.093	-.81	-.054	-.083	-.70
Father education	-.131	-.171	-1.24	-.020	-.027	-.20	.102	.134	1.11	.046	.062	.48	-.001	-.003	-.00
Mother education	.203	.272	3.64**	.085	.119	.98	.049	.067	.51	.248	.346	4.19**	.091	.201	3.29**
Income	.072	.111	1.01	.079	.126	1.09	.011	.017	.12	-.127	-.204	-3.11*	.002	.006	.01
Mother job	-.052	-.084	-.71	-.059	-.099	-.85	-.071	-.117	-.96	-.089	-.151	-1.18	.070	.090	.71
Parent-child communication															
open	.152	.233	3.27**	.119	.189	1.28	.112	.173	1.22	.105	.167	1.21	.114	.161	2.94**
problematic	-.034	-.054	-.42	-.174	-.288	-3.96**	-.116	-.187	-1.24	-.107	-.177	-1.24	-.102	-.143	-2.16*
Concern about children's education															
	.181	.283	3.88**	.213	.344	4.15**	.155	.244	3.36*	.161	.261	3.49*	.149	.235	3.39**
R ²	.145			.199			.156			.210			.276		
F	5.001**			7.324**			5.445**			7.808**			11.19**		

* p<.05, ** p<.01

어머니 학력, 개방형 의사소통, 문제형 의사소통 순으로 나타났고 28%의 설명력을 나타내, 어머니가 자녀의 학교교육에 관심이 많고,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어머니가 자녀와 개방형 의사소통을 많이 하고, 문제형 의사소통을 적게 사용할수록 자녀가 학교에서 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서 볼 때 어머니의 자녀교육 관심도는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 중 교사와의 관계, 교우와의 관계, 학교수업 참여, 학교규칙준수 모든 변인에 영향을 미쳐 어머니가 자녀의 학교교육에 관심이 많을수록 자녀가 학교에서 적응을 잘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어머니가 자녀와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개방형 의사소통을 많이 사용하고, 문제형 의사소통을 적게 사용하는 것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 이었으며,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에서는 어머니학력이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관련 변인, 즉, 가정의 사회인구학적변인,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부모의 자녀교육관심도가 아동의 학교생활적응과 어떤 관계가 있으며,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 대한 각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이 어떠한지를 분석함으로써, 아동이 학교생활에 보다 잘 적응해 나가는데 필요한 가정관련 변인을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목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에 소재한 3개의 초등학교 4, 5, 6학년 학생과 그들의 부모 287쌍을 대상으로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가정의 사회인구학적변인,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부모의 자녀교육관심도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이 가정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아버지 연령이 적은 경우 학교규칙 준수에서 높은 적응을 나타냈고, 어머니의 연령에 따라서는 학교생활 적응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아버지 학력과 어머니 학력에 따라서는 대체

로 아버지, 어머니 학력이 높을수록 더 높은 학교생활 적응을 나타냈다. 이는 부모의 교육수준과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을 분석한 김관희(1997), 김용희(1989), 박지현(2003)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로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교육에 많은 관심이 있어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다. 월수입에 따라서는 월수입이 많은 가정의 아동이 교사와의 관계, 교우와의 관계, 학교수업 참여와 학교생활 적응 총점에서 더 높은 적응 점수를 나타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김수봉(2005), 서미선(2004)의 가정의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에 잘 적응한다는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는 결과로, 월수입이 많고 가정경제수준이 높을수록 가정생활이 안정적이므로 부모의 더 많은 관심과 지도로 아동이 학교생활 적응을 더 잘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어머니 취업유무에 따라서는 어머니가 취업을 안 한 경우 모든 하위변인에서 더 높은 학교생활 적응을 나타냈다. 이는 어머니가 직업이 없는 경우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문정현(2002), 이강홍(1999), 송영경(2006)의 연구와 같은 맥락의 결과로, 어머니가 직업이 없는 경우 더 많은 시간을 자녀교육에 할애 할 수 있고 학교생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 생각된다.

둘째,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부모의 자녀교육 관심도와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 먼저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중 개방형 의사소통은 학교생활 적응과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고, 문제형 의사소통은 모두 유의한 부정 상관을 나타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부모-자녀 간 개방적 의사소통이 이루어질수록 학교생활 적응도가 높아진다고 밝힌 남민숙(2006)의 연구와 일치되는 결과이며, 부모가 개방형 의사소통을 사용하는 집단이 문제형 의사소통을 사용하는 집단에 비해 아동이 학교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더 잘 적응한다는 김현숙(1999), 최재숙(2003), 이영주(2007)의 연구와도 일치되는 결과이다. 즉, 부모가 자녀와 자유롭게 감정을 표현하고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할 경우 자녀와 좀 더 친밀하고 많은 대화를 할 수 있으므로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해서도 많은 대화를 나누고 어려운 점에 대해서도 조

언을 해 줄 수 있으므로 자녀가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할 수 있을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한편 부모의 자녀교육 관심도와 학교생활적용은 모두 유의한 정적상관을 나타내 부모가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도가 높을수록 아동이 학교생활 적응을 더 잘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부모의 자녀교육 관심도가 높을수록 수업태도, 교우관계, 학업성취도가 증가한다는 서미선(2004)의 연구결과와 일치된다. 이는 가정에서의 지속적인 부모의 교육적 관심과 기대는 자녀의 올바른 성장은 물론 학교적응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셋째,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 대한 가정 관련 변인의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먼저 교사와의 관계에는 자녀교육관심도, 어머니 학력, 개방형 의사소통이 영향을 미쳤으며, 교우와의 관계에는 자녀교육관심도와 문제형 의사소통이 영향을 미쳤다. 학교수업 참여에는 자녀교육 관심도가 영향을 미쳤고, 학교규칙 준수에는 어머니 학력, 자녀 교육관심도, 월수입이 영향을 미쳤다. 학교적응 총점에는 자녀교육 관심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어머니 학력, 개방형 의사소통, 문제형 의사소통이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가정관련 변인은 학교생활 적응총점은 28%정도 설명하고 있었고, 하위 변인에 따라 15-21%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서 볼 때 어머니의 자녀교육 관심도는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 중 교사와의 관계, 교우와의 관계, 학교수업 참여, 학교규칙준수 모든 변인에 영향을 미쳐 어머니가 자녀의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교육에 관심이 많을수록 자녀가 학교에서 적응을 잘함을 나타내 주는 것으로, 부모의 학교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기대의 중요성을 시사해 준다. 또한 어머니가 자녀와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개방형 의사소통을 많이 사용하고, 문제형 의사소통을 적게 사용할수록 자녀가 학교생활 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자녀간의 개방적이고 긍정적인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시사해 주고 있다.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에서는 어머니학력이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가 학교생활에 잘 적

응함을 나타내 준다.

한편,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를 경기도에 위치한 초등학교 4, 5, 6학년 학생만으로 한정하였다는 점에서 연구결과를 전체 아동에게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제한점이 있고, 가정관련 변인을 가정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도로 한정된 제한점이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닌다. 즉, 그 동안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져 왔으나,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것이라고 사료되는 초등학생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으며,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중요한 가정관련 변인인 가정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부모의 자녀교육관심도를 탐색함으로써, 부모의 자녀교육관심도가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과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밝힘으로서 아동의 학교생활적응과 관련하여 아동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가정환경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을 높이기 위한 환경조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4, 5, 6학년 아동만을 대상으로, 또한 한 지역만을 연구대상으로 제한하였으나, 연구대상의 연령과 거주지역을 넓혀 다양한 연령과 지역의 아동을 대상으로 폭넓은 비교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생활적응의 측정은 아동의 자기 보고뿐 아니라 교사나 친구의 평가도 중요하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이를 같이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관련 변인으로 본 연구에서 다른 변인뿐만 아니라 다른 가정관련 변인들, 예를 들어 부모의 양육행동이나 양육스트레스 등의 변인들의 영향도 폭넓게 분석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 부모의 자녀교육관심도와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학교생활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으므로 부모가 자녀교육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효과적인 의사소통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실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문희(1980) 어머니의 직업유무가 자녀의 성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논문집 9, 121-139.

김관희(1997) 중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승룡(2005) 초등학교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동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용희(1989) 중학교의 학교생활 부적응 과정과 요인 분석.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현숙(1999)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축진적 의사소통과 학교적응과의 관계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남민숙(2006) 아동이 지각한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과 학교적응의 관계. 춘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노미숙(2003) 초등학교생의 스트레스 정도와 학교생활 적응간의 관계. 인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문정현(2002) 어머니의 직업유무에 따른 아동의 심리 사회적 적응과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지현(2003) 청소년과 부모와의 관계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민하영(1991) 청소년 비행 정도와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가족의 응집 및 적응과의 관계.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미선(2004) 아동의 가정환경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경기 북부지역 초등학교생을 중심으로. 수원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송영경(2006) 초등학교생의 자아탄력성과 사회적지지 및 학교적응.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안영복(1984) 부모의 양육방식과 자아개념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유복귀희(2003) 아동의 애착과 자아존중감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한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유윤희(1994) 학교적응·불안·학업성취간의 관계분석: 중·고등학교생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강홍(1999) 맞벌이 부부 어머니의 자녀 관심도와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상수(1990) 부모의 관심도와 시험불안이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연숙(1991) 가족체계 및 어머니-자녀 의사소통과

청소년 적응의 관계.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영주(2007)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과 자기효능감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은영(2006) 중학생의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유형,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은자(2005)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의사소통유형과 가정생활 및 학교적응과의 관계. 대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장운선(1992) 어머니의 취업이 자녀의 학업성취와 관련된 정의적 변인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세용(1995) 부모의 축진적 의사소통과 자녀의 문제 행동과의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수영(1980) 학업성취와 가정환경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윤미·이숙(2008) 중학생의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자기효능감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19(4), 641~658.

주동범(1998) 학생배경과 학업성취: 어머니의 자녀교육에 관여가 매개하는가? 교육사회학연구 8(1), 41-56.

주현정(1998) 고등학교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차유림(2000)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재숙(2003) 초등학교생 자녀와 부모와의 의사소통 유형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홍은진(1995) 학습과제에 대한 어머니의 관심과 자녀의 학업성취.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Barnes H, Olson DH(1982)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family inventories. Family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Baral BN(1971) Some factors causing breakdown of social adaptability amongst of higher secondary grade of west Bengal. Psychological Abstracts 50, 1971.

Elliot DS(1972) The Social world of the child. San Francisco D. C.: Youth development and Delinquency Prevention Administration.

Epstein JL(1987) Parents involvement: what research says to administrators. Education and Urban society 19(2), 119-136.

Fehrmann PG, Keith TZ, Reimers TM(1987) Home influence on school learning: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parental involvement on high school grads. Journal of educational Reserch 80(6), 330-337.

Gotts E(1980) Long-tern effects of a home-oriented preschool program. Childhood Education 56, 228-234.

Ho SE, Willms JD(1996) The effects of parental

involvement on eighth grade achievement. *Sociology of Education* 69, 126-141.

Ladd GW, Kochenderfer BJ, Coleman CC(1996) Friendship quality as a predictor of young children's early schoo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7(3), 1103-

1118.

Useem EL(1992) Middle school and math group: parents' involvement in children's placement. *Sociology of Education* 65(40), 263-279.